

### 조선대 출신 이규석 공간디자이너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디자이너인 '공간 심재' 이규석 대표가 '동양화 모티프로 한 '진풍유기' 전시 구성과 디자인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4전시관 동양화 모티프로 한 '진풍유기' 눈길 물에 비친 만월의 조화 인상적

## 한국적 공간의 미덕 '심'을 선물합니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슬슬 다리가 아파질 때쯤 제4전시관에 다다르게 된다. 앞서 전시관에서 현대적인 디자인 작품들을 만났다면 4전시관에서는 동양의 멋과 만나게 된다. 관람객들은 오토나무와 한지, 동양화 등으로 디자인된 이 공간에서 전통 가야금 선율을 들으며 '심'을 선물 받는다. 일부는 한지를 투과한 은은한 조명 아래 자신도 모르게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한다.

커다란 'c'자 형태로 구성된 '동양화 모티프 공간디자인'은 디자이너 4명이 한국과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개념의 부피와 호환이다. 8개의 공간 중에서도 조선대 출신 이규석 공간디자이너(공간심재 대표)가 만든 메인 공간인 '진풍유기'(대청)는 산수화를 배경으로 한가운데 놓인 물에 비친 만월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이영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이규석 디자이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찾아낸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비엔날레 전시관 4전시관에서 만난 이

대표는 "우리 것을 찾는 시대에 한국적인 소재로 호텔을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한국적인 '심'과 '여유의 미학'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허은경, 장응복, 배영진씨 등과 디자인을 하면서 전통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일반에게는 회사와 본인 이름보다는 그가 디자인한 공간들이 더 친숙한 디자이너다. 지역 유명 식당인 '무진주'와 '민속촌'은 그의 대표작이자 애착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불과 몇 달 만에 실내 디자인이 바뀌는 추세에서 지난 2001년 인테리어를 한 무진주는 디자인계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은 살아 숨 쉬면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죠. 무진주는 '뒷마당이 있는 휴전 한국'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커다란 '대문'을 열고 식당을 들어가 나무와 물을 지나면 '사랑방'과 만나게 되고, 뒤편으로는 마당이 펼쳐지고, 계단을 오르면 안채가 나오는 구성이죠. 작은 2층 건물을 쪼개 층층이 쌓아올려 모든

공간이 개방된 것이 특징이죠. 사장한테 돈 많이 벌었으면 다시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하는데 안 통하네요. (웃음)"

시내 민속촌을 비롯해 상무지구에 있는 한옥 컨셉의 민속촌도 이 대표의 세심한 배려가 숨은 공간이다. 동선은 넓게 하고 식탁은 크게 해서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며 이 대표가 식당 대표에게 적극 권유했다.

그는 유독 '우리 것'과 '자연'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한옥과 돌, 나무, 물 등은 그가 즐겨 쓰는 소재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편안함을 준다는 생각 때문이다. 회사 이름인 공간 심재(空間 心齋)도 '정신을 청정하게 가다듬는다'라는 뜻이다.

"창조지에 비치는 빛을 보면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요. 그만큼 우리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 비엔날레에 선보였던 작품을 모델로 언젠가는 실제 한옥 호텔도 디자인해보고 싶습니다."

**스토리 담은 '무진주'·'민속촌' 대표작**  
**담양 관광단지 '메타 프로방스' 설계 진행**  
**후배 양성 '디자인 예술학교' 만들고 싶어**

이 대표는 최근 담양에 조성되는 10만평 규모의 융·복합형 관광단지인 '메타 프로방스' 프로젝트 매니저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다. 그는 프랑스 작은 마을의 전경을 가져와 이 공간을 디자인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꿈은 '디자인 예술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다.

"후배들이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디자인에 대한 정신적인 개념과 생각,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다만 후배들이 자신이 디자인하는 공간에 미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며칠밤을 보낼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으면 합니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월간 **커피향**



일상이 되어버린 커피의 모든 것  
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

광주일보 자체지 월간 '예향' 10월호가 나왔다. 207쪽 분량으로 발간된 10월호에는 일상이 되어버린 커피의 모든 것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집 '우리는 왜 커피에 빠지나'에서는 생활의 일부가 된 커피문화를 분석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의 커피 예찬을 들어보고, 커피의 변천사와 스토리, 커피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색적인 커피의 세계를 다뤘다.

기획 '시민은 문화가 필요해'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등 문화가 일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찾아가보고, 광주·전남지역 문화인프라와 문화향유 실태를 점검, 대안을 고민해 봤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신작 '정글만리'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정래 작가를 만나 그의 문화와 인생, 작가관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 앉은 책과 삶에서는 미술평론가 이주현 서울미술관 관장을 만나 독자의 공감을 먹고 사는 그림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는 강진 출신 디자이너 장광호씨의 '땀'을 엿볼 수 있다. 장광호씨는 80년대 밴드그룹 '소방차'의 '슴마바지'로 남성복의 파격을 선보인 뒤 항상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으로 패션계를 이끌었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가한 그를 만나 디자이너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문화역사 기행에서는 서산 해미읍성을 찾아 지순 신앙으로 쓰러져 간 무참한 날을 기억해 보고, 명작의 고향에서는 최명희의 '혼불' 배경지인 남원 사매면을 걸어봤다. 스타 데이트에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배우 윤상현이 자신의 연기인생과 결혼계획 등을 들려준다.

이외에도 깊어가는 가을 단풍 속으로 걷는 길인제를 찾아 떠나보고,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사진으로 만나본다.

### 한·중 미술 흐름 한눈에 10월2일까지 '한중작가초대전'



서위군 작 '천리황하'

한국과 중국 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사)광주·전남발전협회는 10월2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동갤러리에서 '2013 한중작가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작가 18명의 작품 75점과 한국 작가 56명의 작품 56점 등 모두 131점이 전시된다. 양국 작가들은 자국의 풍경, 풍물, 자연, 인물 등을 비롯해 이색적인 정경을 특유의 필치와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중국 내에서 당대 최고로 수장가치 잠재력이 있는 화가로 꼽히는 왕기염, 홍콩문화서원 계약화가

로 황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위군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국내 작가로는 황영성, 양계남, 김종일, 박태후, 노의웅, 우재길, 이남, 한희원씨 등이 참여한다.

한중작가초대전은 한중 양국간의 국제교류를 통한 친선활동과 양국 미술인의 우호증진, 지역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작했으며, 6회째를 맞았다. 광주·전남발전협회는 앞서 중국 운남성 성도인 곤명과 곡징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광주를 찾은 중국 작가 및 관계자 26명은 28~30일 제주도를 스키지한 뒤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문의 062-222-007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다음달 28일까지

# 50% POWER SALE

**NAVER 홍스페이스**

**지하 2층~5층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